

사 설

불교문화운동의 부흥

작금에는 다양한 불교 문화행사 가 준비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 화순군과 운주사에서는 '화순운주대 축제'를 11월초 열었고, 도선사는 청담스님 25주기를 맞아 '청담문화제'를 설립한다고 한다. 총무원에는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새롭이 자각하고 그동안 통합운영되어 왔던 문화사회부를 '문화부'와 '사회부'로 분리 운영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내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해 놓았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코드로 형성된 것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 유교는 그 의례적 합리적 지향 때문에 신화적 상징적 공간이 극히 축소되어 있다. 유형문화는 서원과 향교, 제각 등에 국한될 뿐이고, 그나마 그 공간을 살아있게 하고 의미부여하는 집단, 즉 사대부 계층의 무형적 전승이 거의 단절됐다. 이래저래 유교문화유산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남아있는 한국의 문화 유산의 주축은 불교적인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들은, 특히 불교인들은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금 불교유산은 안팎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가이산의 사태와 유사한 도전이 끊임없이 출몰되고 이어질 것이다. 그 도전에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위기는 불교 내부에 있다. 문화는 지속적 자양과 보호 관리가 없으면 쇠퇴하고 소멸하는 유기체이다.

내부의 위기관 바로 불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할 창의와 창조적 역량의 고갈이다.

유형적인 것만 해도 그렇다. 세월의 풍파와 더불어 짙어진 지구 남아가고 허물어진다. 전국적으로

사람마다 새로운 불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히 어실 프고 혼이 빠져 있다. 통일신라 불교의 장중함과 세련미는 고려에 들어 점점 형식화하다가, 조선조에 내려오면 퇴화의 기미를 보인다.

그나마도 다행이었다. 지금 새로 조영되고 건립되는 전각이나 불탑 등은 차마 보아주지 못할 것들이 많다. 황룡사를 짓고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한 기백과 신심을 기대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학적 고려가 결여된 조악한 조형은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불교문화는 가시적 조형물의 상징적 공간을 근본적 토대로 하고 있다. 무형의 교리와 의식 못지 않게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창조하는 일에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 단적으로 장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인간문화재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월 20~30만원의 보조비로 어떻게 훈을 건 장인들을 키울 수 있는가. 정부와 시민들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불교는 유형과 무형의 교감과 협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이다. 유형을 소홀히 하고 무형만을 강조해서는 불교는 생명력을 잃는다. 불교문화운동의 근본 또한 이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문화적 이벤트도 중요하고, 거창한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불교문화운동은 쇠락해가는 불교적 공간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촉구한다. 그를 위해 우선 불교적 상징물의 전문적 장인을 길러내고 우대하여 그들의 창의력과 신심을 불사에 공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열린마당 승가복지

원학스님 (조계종 총무원)

승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승가복지의 사활성 확보, 운영자금 활용의 노후부족 등 중단적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전문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은 승가복지정책으로 노후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노후복지보다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마련이 더 시급할 것이다.

역경 포교 도제양성에 전력해야 할 스님들에게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병이 들어 더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을 때가 더 걱정스럽다. 승려들이 노후보장을 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아니다. 승려들의 노후는 모범적인 수행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노후복지정책마련보다 스님들이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건립 및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간병인의 인력보조, 수술 및 입원치료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종단에서 전액지원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권경일 (중암승가대 사회복지학 강사)

초기 승가공동체에서는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것은 공동생활과 분배의 수도공동체로서 최소한의 소비생활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사회적 변화속에서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과 활동보장을 위해 생활 및 의료보장, 노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불교승단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의 미비, 경제적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문중이나 후원신도가 없는 경우 생활상의 곤란, 교육을 위한 학비조달의 문제, 질병이나 상해시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전용의료시설의 미비,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과 장의시설 미비 등 제반문제를 종단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차이, 복지대상판별의 기준 마련, 재원의 한계, 복지정책수립의 우선순위 마련 등이다.

이번 조계종의 승가복지 시행방안은 불교계가 대내적으로는 승가복지가, 대외적으로는 불교사회복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불교의 현대화·사회화란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보장보다 의료복지정책 급선무

다들 생각하십니까? 승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승가복지의 사활성 확보, 운영자금 활용의 노후부족 등 중단적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전문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은 승가복지정책으로 노후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노후복지보다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마련이 더 시급할 것이다.

역경 포교 도제양성에 전력해야 할 스님들에게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병이 들어 더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을 때가 더 걱정스럽다. 승려들이 노후보장을 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아니다. 승려들의 노후는 모범적인 수행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노후복지정책마련보다 스님들이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건립 및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간병인의 인력보조, 수술 및 입원치료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종단에서 전액지원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수행·포교 전념환경 제도적장치 필요

승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승가복지의 사활성 확보, 운영자금 활용의 노후부족 등 중단적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전문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은 승가복지정책으로 노후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노후복지보다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마련이 더 시급할 것이다.

역경 포교 도제양성에 전력해야 할 스님들에게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병이 들어 더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을 때가 더 걱정스럽다. 승려들이 노후보장을 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아니다. 승려들의 노후는 모범적인 수행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노후복지정책마련보다 스님들이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건립 및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간병인의 인력보조, 수술 및 입원치료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종단에서 전액지원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승가복지에 급급한 나머지 승가복지가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평해에 기인한 10월28일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승가복지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11월말로 접수 마감... 선정위 구성키로 예산확보·수혜대상 확대 등 과제산적

조계종 추진중인 승가복지사업의 내용은 크게 연금(노후생활보장) 혜택과 의료 및 재해보장이다. 부수적으로 학자금 용자와 종학사업을 위한 대출을 가능토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종단에서 세납 41~50세 스님(신청대상 승려 1천3백50명)을 대상으로 매월 4만5천원을 불입하고 60세부터 20년간 매월4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또 보장보험에 가입할 경우(2천2백40명) 매월1만원씩 납입, 60세까지 재해 발생시 보상금 및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따라서 총무원은 97년도 승가복지사업 예산으로 9억원을 편성하고 연금은 은행에, 보장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 예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11월 중후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기관을 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가복지사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위해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0월30일 총무원회의에서 '승려연금 및 보험실시 규정'을 입법예고 하

고 연금 및 보험급여 실시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연금 및 보장보험의 실시는 출가자들을 수행에 전념하도록 보장하고, 소임자들에게는 사임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어 불신성 공이 깊은 종단공토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노후복지시행으로 궁극적인 승가복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교복지전문가들은 승가복지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시혜대상의 확대는 물론, 특별예산 확보 및 현실성 있는 연금정책 등 세부적인 수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도 관련예산은 우선 조치 가 필요한 스님들에 대한 공적부조, 비교적 부담이 적은 보장보험을 위한 기금으로 한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총무원은 구축계를 수지하고, 세납 40세부터 64세까지의 모든 스님들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도필선 기자

복지기금 공제회비·기부금등 통해 조성 퇴직후 생활비 등 월 150만원 교구 지원

승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승가복지의 사활성 확보, 운영자금 활용의 노후부족 등 중단적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전문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은 승가복지정책으로 노후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노후복지보다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마련이 더 시급할 것이다.

역경 포교 도제양성에 전력해야 할 스님들에게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병이 들어 더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을 때가 더 걱정스럽다. 승려들이 노후보장을 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아니다. 승려들의 노후는 모범적인 수행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노후복지정책마련보다 스님들이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건립 및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간병인의 인력보조, 수술 및 입원치료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종단에서 전액지원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승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승가복지의 사활성 확보, 운영자금 활용의 노후부족 등 중단적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전문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은 승가복지정책으로 노후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노후복지보다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마련이 더 시급할 것이다.

역경 포교 도제양성에 전력해야 할 스님들에게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병이 들어 더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을 때가 더 걱정스럽다. 승려들이 노후보장을 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아니다. 승려들의 노후는 모범적인 수행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노후복지정책마련보다 스님들이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건립 및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간병인의 인력보조, 수술 및 입원치료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종단에서 전액지원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불교전문교양대학

더욱 전문화된 모습으로...

목어

법장스님의 오계

승가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승가복지의 사활성 확보, 운영자금 활용의 노후부족 등 중단적으로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전문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발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총무원은 승가복지정책으로 노후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노후복지보다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마련이 더 시급할 것이다.

역경 포교 도제양성에 전력해야 할 스님들에게는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병이 들어 더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을 때가 더 걱정스럽다. 승려들이 노후보장을 받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아니다. 승려들의 노후는 모범적인 수행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노후복지정책마련보다 스님들이 부담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건립 및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간병인의 인력보조, 수술 및 입원치료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종단에서 전액지원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새싹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게으름은 몸의 '때'

게으름은 몸의 '때'와 같은 것,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자기에게 박힌 한살을 뽑으라. (숫타니파타)

조계사 주지 현근 TEL.(02)720-1390

BBS 불교대구방송 개국

11월11일

10월 초하루 법회에서 부처님 말씀을 FM94.5MHz 라디오로 만나십시오.

「개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대구방송이 대구·경북 불자여러분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구·경북지역의 새로운 불교문화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보도, 음악, 교양, 포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개국 식: 11월11일 오전 11시 불교대구방송(진각빌딩 8층)

■ 축하리셉션: 11월11일 오후 7시 대구프린스호텔 리셉션홀

불교대구방송에서 불사의 원력으로 함께 일할 스님을 모십니다

방송업무 및 제작 편성 등 다양한 업무에 함께 공부하며 불사의 원력으로 일할 스님을 모십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700-430 대구중구 대동동 156-1 진각빌딩 대표전화 (053)427-5114 팩시밀리 (053)427-4433

BBS 불교대구방송 사장 법탁 운영위원장 설조 합장